

추밀공파 석주공 종회 제33기 정기총회 개최

후속 세대 양성 모범사례, 석주공 문중

추밀공파 석주공 종회 제33기 정기총회가 3월 12일 11시 30분 서울 중랑구 망우로 353 상봉이노시티 C동 지하 1층에서 권경일 회장을 비롯하여 권경석 전 추밀공파 회장 등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이하게 석주공 문중은 여느 문중과는 달리 간간이부터 어린 꼬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어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세대에 걸쳐 참석하였다.

총회는 권순석 사무국장의 사회로 개회사, 국민의례, 시조 태사공 및 석주공계 망배, 회장 인사, 2022년 업무보고와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 2023년 예산 심의 의결, 감사패 증정, 고교와 대학 장학증서 수여, 초,중등학교 입학축하금 지급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경일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를 인하여 3년 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정기총회를 갖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다. 먼 곳에서 또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회원과 가족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반갑다. 지난 7년 동안 어려운 가운데 종회와 장학회를 잘 이끌어 주신 권오중 회장님. 참으로 고생 많으셨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경일 회장은 며칠 전 이사회 때 어느 이사가 갑자기 저는 어느 파입니까? 라고 물어서 이 자리에 혹시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 하여 여러분에게도 석주공 후손으로서 기본예절을 간단히 알려드리고자 하니 참고하기 바란다라고 하며 '안동권씨 석주공 기본예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안동권씨 석주공 기본예절
안동권씨 성은 어떻게 받았나요?
 권씨(權氏)는 본래 신라 왕성인 김씨(金氏)이다. 신라(新羅) 말 김행(金幸)이란 분이 김씨어 고창군(昌郡)을 수여하고 갈매 때 권환(權萱)이 신라를 침입하여 왕을 시해하고 왕비를 능욕하니 고려 태조가 구원하고자 와서 권환과 서로 대치하니 행(幸)이 좌중과 모의하여 말하기를 권환은 의리상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이니 왕공(王公, 왕간)을 맞이하여 통분을 씻지 않으리오. 하고 연합하여 산(山)에서 대과하였다. 고려 태조는 '행(幸)은 능히 기미에 밝고 권도에 통달(柄幾達)하였다.' 하면서 태조 13년 권씨(權氏)로 성(姓)을 주고 태사(太師)의 작위를 내렸으며 군을 식읍으로 하고 안동부(安東府)로 승격시켰으니 三韓三重大臣父功臣太師(삼한백삼중대관아보공신태사)이다. 그래서 안동권씨 시조는 권權자 행후자이고 이때부터 안동권씨가 시작되었다.

석주공 후손은 어느 파에 속하나요?
 안동권씨는 10대에서 15개 파로 분파가 되는데, 석주공 후손들은 추밀공파입니다. 추밀공파 선조들은 주로 한양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 이유는 과거 시험에 급제해서 벼슬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추밀공파는 안동권씨 중 인원이 제일 많은 파로서 안동권씨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동권씨는 조선시대 과거시험에 359명이나 급제해서 한국

의 성씨 중 제일 많이 과거에 급제한 성씨입니다. 여러분은 그 후손들입니다. 안동권씨 파와 계 등을 구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세(世) | 휘(諱) | 묘소 |
|----------|------|--------|-------|
| 추밀공파(派) | 10세 | 수평(守平) | 파주 장단 |
| 양촌공계(系) | 16세 | 근(近) | 충북 음성 |
| 안숙공열(列) | 17세 | 준(遵) | 충북 음성 |
| 창수공 목(目) | 19세 | 억(憶) | 고양 일산 |
| 석주공 지(支) | 22세 | 필(黼) | 고양 일산 |
| 반곡공 업(業) | 25세 | 수(遂) | 충남 벌곡 |
| 효정공 가(家) | 26세 | 적(適) | 충남 금산 |

또한 다른 사람들이 성씨가 어떻게 되나오 등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아래와 같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 질문 | 답변 |
|--------------|--|
| 성씨가 어떻게 되나요? | 권기입니다. |
| 본관이 어디죠? | 안동입니다. |
| 어느 파인가요? | 추밀공파입니다. |
| 어느 조상 후손인가요? | 16세 권(權)자 근(近)자 양촌공 22세 권(權)자 필(黼)자 석주공 후손입니다. |
| 권씨끼리 자기 소개시 | 저는 안동권씨 추밀공파 37대손 ○○입니다. |

설명을 마친 후 권 회장은 3년 만에 친척들이 모였으니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좋은 대화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는 권순석 사무국장과 종중과 장학재단을 잘 지키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절차에 의해 본격적인 총회에 들어갔다. 먼저 지난 7년 동안 코로나 등 어려운 가운데 종회를 이끌어 회장직을 수행한 권오중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입학생에게는 각각 50만원의 입학 축하금을 지급했다. 고등학생 8명에게는 장학증서와 함께 각각 2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되었고, 대학생 10명에게는 장학증서와 함께 각각 3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이렇게 보니 석주공 후손 모두가 장학생이 되어 장학증서를 받고 있었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남학생과 여학생은 모두 25명이었다. 권경일 회장은 장학증서를 받은 후손들에게 안동권씨 석주공 후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형제간에 우애 있게, 공부 열심히 하면서, 멋진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석주공 문중은 이외에도 경로금과 출산축하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권경석 전 추밀공파 회장은 현재 한국의 출산율이 극히 저조하여 만약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지방소멸 등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인구 장려가 복지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석주공 종중에서는 현재 지급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50만원을 앞으로는 300만원으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법진 박사 가족



장학증서 수여



어린이에서부터 중고등학생과 대학생과 어른까지 전 세대가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행사장 뒤쪽에 젊은 부부가 아이를 안고 있어서 여쭙보니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여 2018년 이학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SK이노베이션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권법진 박사라고 했다. 자신도 어릴 때부터 문중 행사에 나왔고 석주공 문중의 장학생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그래서 문중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어린이로부터 대학생까지 후손들은 행사장 이곳저곳에서 가족들과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며 앉아있었다. 참으로 인상적인 광경이 아닐 수 없었다. 그중 고등학교 1학년인 권혜인 양과 초등학교 6학년인 권한결 군에게 종중 행사에 오니까 어떠냐고 물었더니 '그냥 좋다'고 했다. 그야말로 집안 잔치였고 그들이 바로 주인공이었다.

앞으로 안동권씨 문중행사와 후속 세대 양성은 석주공 문중이 좋은 모범사례가 되지 않길 바란다. 어린이에서부터 자기 뿌리에 대해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 하고 선조들에 대한 숭조정신을 함양하며 가문의 전통과 역사를 후속 세대로 계승 발전시키는 일은 문중 행사만큼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 문중 행사를 살아있는 학습의 장으로 살리며 집안 손자들까지 참여하는 그 바람직한 사례가 지금 석주공 종중에서 벌어지고 있다.

권행안 편집국장

추밀공파종회 임원진 정현공계 참의공 종중 방문

추밀공파 회관 마련을 위한 설명회 개최



권오돈 추밀공파종회 회장을 비롯하여 권경석 전 추밀공파종회 회장과 권경일 사무처장 등 임원진은 3월 20일 11시 대전에 위치한 정현공계 참의공 종중 사무실을 방문하여 추밀공파 회관마련에 따른 설명회를 권동원 참의공 종중 이사장의 사회로 개최했다.

권동원 참의공 종중 이사장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반갑고 고맙다. 오늘 31명을 초청했는데 개인 사정상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는 분을 제외하고 전원 참석했다고 하며 일일이 한명 한명씩 소개했다. 참석자는 권오돈 추밀공파종회 회장, 권경석 전 추밀공파종회 회장, 권경일 사무처장, 권행안 대종회 편집국장, 권선우 참의공 자문위원회 의장, 권영의 참의공 자문위원 및 목사공 회장, 권충원 참의공 대의원회 의장, 권익찬, 권상순 참의공 대의원회 부의장, 권낙원 만회공 종중 이사장, 권선출 만회공 종중 상임이사, 권경일 합참공 종중 상임이사, 권호천 낙소공 종중 이사장, 권인순 탄옹공 종중 이사장, 권충원 덕봉공 종중 이사장, 권선우 대사간공 종중 이사장, 권익순 대사간공계 통덕랑공 종중 이사장, 권만순 대사간공계 진사공종중 이사장, 권용재 찬성공 종중 이사장, 권중주 찬성공계 통덕랑공종중 이사장, 권선우 찬성공계 통덕랑공 종중 이사장, 권호일 찬성공계 사평공종중 이사장, 권선덕 찬성공계 사평공공 종중 상무이사, 권선우 찬성공계 동지공종중 이사장, 권선구 찬성공계 동지공 종중 전 이사장, 권석원 찬성공계 유희당공 종중 이사장, 권선준 찬성공계 유희당공 종중 상임이사, 권이원 찬성공계 진장 통덕랑공 종중 이사장, 권동원 참의공 종중 이사장, 권대순 참의공종중 상임이사, 권용수 참의공종중 총무이사 등이다.

권동원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안동권씨 인구 중 추밀공파가 자손이 제일 많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안동권씨 15개 파 중 8개 파가 회관을 가지고 있는데 추밀공파는 회관이 없다. 그래서 몇 년 전에 권경석 전 회장께서 1000만원을 헌성금으로 내면서 추밀공파도 회관을 마련하자는 결의까지 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회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창회공 종중과 충정공 종중에서는 어느 정도 헌성금을 기탁하고 있는데 정현공 종중은 다소 소극적이었다. 그래서 추밀공파종회 집행부에서 직접 대전에 한번 오셔서 회관마련에 대해 사정 말씀을 좀 하시라고 부탁드렸다. 이 자리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 어렵게 지내는 종중도 있었지만 결론 내기가 어려우면 지파에서 협의하여 임시일반 협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경석 전 추밀공파종회 회장이자 회관 마련 추진위원장 :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다. 코로나 이전에 개인적 사정으로 회장직을 그만두었다. 대종회 사무총장도 하고 상임부총재도 역임했는데 추밀공파 회장을 맡은 후 추밀공 단소를 살단 할 때 약 3억원이 모금됐다. 그 중 1억 5천이 남았는데 그냥 가지고 있다가 건물 시기는 올라가도 또 건물을 살만 한 여유도 없었다. 현재 회비 건어서 파종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회관을 마련하면 회비를 건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1000만원을 내고 사업추진에 착수했다. 처음에는 3개년 계획을 세웠다. 그러다 코로나도 도저히 모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잠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안동권씨는 100만 가족이다. 실지로는 해의 10만, 북한 20~30만 모두 합하면 100만이 넘는다. 이중 36%가 추밀공파 후손이다. 15개 파 중 제일 큰 파이다. 부호장공파는 약 2만 명, 복야공파는 약 28만명, 좌윤공파는 약 4만 7천명, 별장공파는 약 3만 7천명, 부정공파는 약 10만명, 시중공파는 약 2만 4천명, 정조공파는 약 1만 4천명, 검교공파는 약 4만 6천명인데도 이 8개 파는 회관을 가지고 있다. 유독 인구가 많은 추밀공파는 회관이 없다. 그래서 누가 추진하든 추밀공파 회관을 마련해야 하고 이것이 선조를 잘 모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권동원 이사장께 이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사사로



권동원 참의공 이사장



권경석 전 추밀공파회장

이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조상을 잘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숭조정신과 애족정신을 가지면 얼마든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세대에 못하면 다음 세대는 힘들다고 본다.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시고 종원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성의만 있으면 추밀공파는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

권오돈 회장 : 이렇게 만나 뵈게 되어 반갑고 고맙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돈하고 여러분께 시 많은 도움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다. 헌성금 내는데 힘들겠지만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권동원 이사장 : 종중 돈 각출이 쉬운 게 아니다. 추밀공 신도비도 참의공과 탄옹공에서 설립했고, 시조묘소 들어가는 임구 표지석도 참의공에서 건립한 바 있듯이 정현공계에서도 많은 일을 해왔다. 그런데 회관 마련하는데 어느 종중에서 얼마를 내야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내 주머니 돈이 아니어서 몹시 민감한 부분이다. 집행부 임원진이 대전까지 방문했으니 충분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적극 협조해 주시면 한다. 이해가 안 되거나 더 알고 싶으면 질문해 달라.

권영의 목사공 종중 회장 : 회관 마련하는 기간도 없고 언제까지 추진하겠다는 언급이 없어 추진력이 다소 떨어지는 느낌이다.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한다.

권경석 전 회장 : 코로나로 이 사업 추진이 잠시 중단되었는데 금년부터 2년 안에 내년 말까지 모금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 후년이면 회관을 마련하지 않을까 한다. 10억으로 건물을 못 사고 한 층은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건을 조사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구입할 예정이다.

권오돈 회장 : 지금부터 물건을 보러 다닐 예정이다. 추진하는 사업에 믿음을 갖고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셨으면 한다.

권인순 탄옹공 이사장 : 이런 내용은 오늘 처음 들었다. 회관 마련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주셔서 현재 상황이 어찌된 것인지였다.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을 들으면 속 시원하겠지만 개인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추진방법이나 그동안 경과 등에 대해서 숙지했으니 돌아가서 종원들과 상의하도록 하겠다. 만약 반대하면 설득도 해야 하고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한다.

권동원 이사장 : 회관 건립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금액에 대해서는 인구비례에 따라서 정한 것이 아니고 권경석 전 회장이 대종회서 10여년 근무하면서 자금 여러 등을 파악해서 할당하고 이사회에서 가결한 사항이다. 지리해 주셔서 고맙다.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은 인근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참석자들은 권동원 참의공 대의원회 의장을 중심으로 다시 회의실에 모여 30여분 동안 회의에서 제기된 헌성금 납부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헤어졌다.

권경석 전 회장과 권오돈 회장은 앞으로 회관마련을 위해서라면 어느 종중이라도 찾아가서 회관마련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하여 종원들의 동참을 구하고 헌성금을 독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행안 편집국장

윤월(閏月)에 대한 소고(小考)

음력의 달은 1년에 354일이고 양력의 달은 1년에 365일이다. 음력이 1년에 11일 부족하여 2년 7개월에 1회 5일 4개월에 2회 19년 만에 윤월이 7회 돌아온다. 음력과 양력을 함께 사용하는 우리 민족의 윤월의 비중은 크다. 조선시대 말기 순조 때 부사 홍석모가 지은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라는 저술을 통해 윤월은 천지의 영적(靈的)인 기운도 인간사에 간섭할 수 없는 기간이라고 했다. 그 이후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조상의 묘소를 이장(移葬)하거나 수묘(修墓), 사초(抄草), 비석, 상석 등의 행사와 화장을 윤월에 많이 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윤월에는 이삿집 센터는 호황이고 예식장 일정은 휴업상태이며 산부인과 병원은 윤월이 되기 전 예약절차가 유도분만으로 출산을 앞당기려 임산부들의 요청이 쇄도해 '예'를 먹는다. 그러면 과연 윤월에는 이장, 집수리, 수묘, 사초 등은 탈이 없고 결혼 출산 등 경사는 피해야 되는 것인가? 민속학자들은 이러한 전통 민속의 근거를 '동국세시기'에서 찾는다. 동국세시기에는 모든 일에 꺼릴 것이 없는 달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윤월에는 귀신이 없는 달이라서 하늘과 땅의 신들이 인간에 대한 감시를 잠시 쉬는 기간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예부터 우리 조상들은 매달마다 그달을 관장하는 12 귀신인 월건(月建)이 있다고 인식해 왔음을 여러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까지도 장례 때나 제례의 축문에 해당 월마다 그달의 월건을 사용하고 있음이 이를 방증한다. 윤월에는 월건이 없다. 이런 맥락에서 윤달은 1년 중 한 달이 가외로 있는 13번째 달이어서 모든 일에 부정하지 않고 신들의 해코지가 없어 액(厄)이 끼지 않는 것으로 믿었다. 음력의 힘은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 알게 모르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

리 택일문화이다. 사실 달력은 양력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태양만큼 달도 실제로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까닭이다. 그래서 음력과 양력은 중도적으로 사이좋게 공존해 왔다. 모자라서 보태는 만큼, 넘쳐서 털어내는 일도 중요하다. 윤달에는 월건이 없기 때문에 살(殺)이 없다고 하여 위와 같은 심리적으로 위축될만한 일들을 한다고 하지만 윤월에도 일진(日辰)은 있는 법이다. 신살(神殺)을 볼 때에는 태세(太歲, 년간지年干之)와 일진(日辰, 일간지日干支)만을 보며 월간지(月干支)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윤달이라 하여 모두 길일은 아니다. 천기대요(天機大要)의 책을 보면 황도일(黃道日)과 흑도일(黑道日)이 있는데 황도일은 길일이고 흑도일은 흉일이다.

음력 기준으로 한 달에 황도일에 6일이 있으니 이날을 택일하여 이장, 수묘(사초) 비석, 상석, 화장 등을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며 윤달이 오기를 몇 년 동안 오래 기다리지 말고 매년 한 번씩 오는 투수일(偷修日) 대한(大寒) 후 10일, 입춘 전 5일이 투수일이니 이날은 이땅의 모든 흥신이 상천하여 조화하는 날이며 세간교승일(歲官交承日)은 투수일에서 전 3일 후 일 일주일 간은 구년(舊年)의 흉신을 떠나고 신년의 관신은 아직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는 일년 중 공망일(空亡日)이므로 매사에 꺼리는 바가 없다고 했다. 위에서 말한대로 굳이 윤달을 고집하지 말고 천기대요의 책을 참고하면 백사에 더욱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혹자는 아예 천기대요를 무시하고 비와 눈이 오면 일을 못하니 비와 눈이 오는 날은 흉일이고 청명한 날은 길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택일법은 천기대요에 의한 것에서부터 독자적 비

법에 이르기까지 수십 가지가 있으나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황도택일법(黃道擇日法)이다.

달력이나 만세력에서 아래의 일진을 찾으면 그달의 황도일로 대략한 날이라서 조장, 이장, 사초, 비석, 상석, 수묘, 혼인, 이사 등 모두 사용해도 길다고 되어 있다.

- 월의 표시는 음력 기준이다.
- 1. 7월 자축진사미술(子丑辰巳未戌)의 일진이 황도일
- 2. 8월 인묘오미유자(寅卯午未酉子)의 일진이 황도일
- 3. 9월 진사신유해인(辰巳申酉亥寅)의 일진이 황도일
- 4. 10월 오미술해축진(午未戌亥丑辰)의 일진이 황도일
- 5. 11월 신유자축묘오(申酉子丑卯午)의 일진이 황도일
- 6. 12월 술해인묘사신(戌亥寅卯巳申)의 일진이 황도일

참고문헌. '황학도黃黑道 길흉吉凶 정국定局 세찰요망細察要望', 신중. <천기대요>, 대한역법연구소, 역면, P.175.

결론적으로 음력은 양력보다 11일 짧으니까 이를 그대로 두면 대략 17년 후에는 5.6월에 겨울이 될 수 있고 12월에 여름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간중간에 윤달을 두어 절후를 맞추는 것으로 윤달을 두는 방법이 고안되었는데 그 가운데 19대양년에 7번의 윤달을 두는 방법을 19년 7윤법(十九年七閏法)이라 하여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다.

요즘 윤달에 대한 관심이 의외로 높은 것 같은데 윤달은 일반인들이 세시풍속으로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윤달은 단지 태음력에서 역일과 계절이 서로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윤달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까지도 회피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나 싶다. 태양력이 기준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윤달에 대한 속설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 권오록 전 경주풍수지리학회 회장